**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6B – 마태복음 13:24-52: 왕국의 비유 II**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마태복음 강좌 6b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적 설교, 즉 천국 비유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밀과 가라지의 비유, 혹은 가라지와 밀의 비유 , 혹은 가라지와 밀의 비유, 혹은 가라지 , 혹은 뭐라고 부르든 간에, 13장 24-30절의 가라지의 비유는 13장 36절 이하에서 해석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은 독자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해석하신 씨 뿌리 는 자의 비유와의 유사성 때문에 이미 이 비유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비유의 유사한 주제는 파종, 씨앗, 그리고 상반된 결과입니다.

13:36 이하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비유에서 각각의 씨 뿌리 는 자 와 씨앗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적, 가라지, 지주, 노예, 수확, 거두는 자, 불, 헛간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지만, 씨 뿌리 는 자의 비유에는 가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 이 비유에서 특히 발견되는 이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13:36 이하에서 예수께서 해석하실 것이지만, 지주와 그의 적, 즉 좋은 씨앗, 즉 밀과 가라지, 헛간, 불 사이의 발전하는 이원론은 이미 선과 악의 우주적 세력 사이의 불길한 싸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짧은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주의 학파, 적어도 구세대주의 학파는 이 비유의 이미지가 기독교 세계 안에 존재하는 악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주로 천국을 조직적이거나 명목상의 기독교로 이해되는 기독교계를 포괄하는 신비로 이해하는 데 기인합니다. 기독교계 전체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두 비유 모두 일반적으로 그 악을 묘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월부르는 나무에 둥지를 튼 새들을 불신자들로 해석하기까지 하지만, 세대주의자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겨자나무가 천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가들은 누룩이 성경에서 때때로 악의 상징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여러분도 직접 성구 색인을 찾아 이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9절,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 12장 1절, 고린도 전서 5 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등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17절을 비교해 보면 누룩이 제사 제도의 일부로 좀 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누룩이 묘사될 때 항상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누룩 비유는 기독교 내에서 악이 자라나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비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종종 후천년설과 의식적으로 대조되는데, 후천년설은 두 비유에 나타난 왕국의 성장 이미지를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세상이 궁극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는 정반대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조직된 기독교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 기독교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적인 세대주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천국을 예수의 두 강림 사이에 기독교 세계 내에서 악의 신비로 이해하는 방식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누룩이나 겨자씨에 비유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악의 묘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묘사되는 것은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성장입니다.

새나 누룩을 다른 성경적 상징들, 예를 들어 사자가 어떤 맥락에서는 사탄을, 다른 맥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항상 악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자가 사탄으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사자가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미묘하지만 극적으로 중요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왕국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빈번히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13:23).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왕국의 발전을 의심했을지 모르지만, 왕국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11:1-6). 강한 자가 결박당하고 그의 소유가 약탈당하고 있습니다(12:29). 후천년왕국론자들은 왕국의 발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고전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대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은 겨자씨만큼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동산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성장은 빵 한 덩어리에 있는 누룩의 영향처럼 미미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온 땅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같은 겸손한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거리에서 부르짖지 않고(12:19),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21:1) 하나님의 겸손한 종에게 적합합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은 주석에서 이 비유들이 현재의 현실과 왕국의 궁극적인 운명 사이의 대조를 묘사한다는 점을 옳게 지적합니다. 지금 겸손한 것이 그때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며 궁극적인 것과 현재의 일치가 존재한다는 깨달음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인용하신 시편 78편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 담화에서 구약성경의 두 번째 성취 인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우리 주님께서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일어났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불신의 양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임박한 침략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분의 왕국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13장 14절과 15절을 이사야 6장, 9장, 10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마태는 자신이 전하는 담화에 대한 자신의 주석을 삽입하며, 시편 78편 2절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모형으로 인용합니다.

시편 78편에서 아삽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적에 대한 이 이야기는 마치 태고부터 감춰진 비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78편 2절). 하지만 실제로 이 비밀들은 아삽 세대가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조상들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이 고대의 비밀들을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하지만 시편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찬 신비로운 담론이 아니라, 반항적이고 규율 있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따라서 아삽이 왜 고대부터 감춰진 비밀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돌보심을 언급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다소 흥미롭고 어렵습니다. 이는 분명 새로운 세대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전통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들은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과 관련하여 여기서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삽이 78장 2절에서 자신의 역사 서술을 비유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세대에는 잘 알려진 사실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아직 고대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약간의 시적 과장이 있지만, 요점은 분명합니다. 아삽의 시편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의 방식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분별될 수 있는 심오한 패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유적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죄와 마땅한 형벌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보이신 신실하심의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 이 신실하심은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78편 4절, 7절, 11절, 12절, 32절, 42절, 43절을 보십시오.

아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와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 문제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 은혜라는 심오한 진리를 계시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태가 시편 78편에서 아삽의 말을 인용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핵심 비유의 명백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시편의 내용을 문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마태가 유형론에 대한 애정, 즉 예수님이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 구약 역사의 패턴들을 발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태의 구약 관점이 종종 유형론적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유아기 이야기 초반에 드러납니다 . 따라서 마태는 아삽의 말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패턴을 제공하는 선례를 발견합니다. 아삽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심오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궁극적인 비밀을 자신의 세대에게 계시하십니다.

13:11을 보고 12:39과 41:42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삽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신실하심의 본보기를 분별하고, 그 신실하심이 백성의 불순종과 징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심판과 상급이 임할 때까지 성장하는 왕국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13:19와 39~43을 주목하십시오.

아삽이 옛 시절을 묵상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진리를 제시했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이 가르침 속에서 새것과 옛것을 모두 꺼내어 자신의 보물 창고에서 꺼내도록 준비시킵니다(13:51, 52). 아삽 시대에 새것이었던 것이 이제 제자들의 보물 창고에 있는 옛것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가르칠 때에도 여전히 새롭게 남을 것입니다(28:19, 20).

점 에 대해서는 카슨의 주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논의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36절부터 4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해석하신 방식은 첫 번째 비유보다 더 이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씨 뿌리 는 자의 비유처럼 땅의 모습을 빌려 열매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 두 집단의 운명을 생생하게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운명을 초래하는 대조적인 윤리적 특성, 문자 그대로 불법과 의의 속성 또한 41절에서 43절까지 드러납니다. 또한 37절에서는 예수님과 38절과 39절에서는 마귀의 역할이 명확하게 대조됩니다.

우주적 갈등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인물, 비유에서 대조되는 사람들, 윤리, 그리고 운명의 배후에 있는 인물은 예수님과 사탄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 ,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기에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마 11:27).

그러나 원수인 사탄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마 7:15) 씨를 뿌리는데, 그 결과 나온 가라지는 밀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사탄은 위대한 모방자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종종 시대의 종말과 코발로 에 대한 심판을 강조합니다 .

세례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고하는 생생한 언어로 이 사실을 전합니다. 마태는 산상수훈 7장 22절과 23절에서 자신을 종말론적 심판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충실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 임할 미래 왕국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5장 3절, 5절, 10절, 그리고 6장 10절과 7장 21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상치 못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족장들과 함께 종말론적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8절, 11절, 12절).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돕는 것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10장 32절, 33절, 그리고 41절, 42절).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을들의 위험은 심판이 임할 때 구약에 나오는 악명 높은 마을들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11장 22절과 24절, 그리고 12장 41절).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내세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12장 32절). 이 모든 심판 구절들을 배경으로, 마태복음 독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세상 종말이 생생하게 묘사된 것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에도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보고 싶다면, 13장 49절, 16장 27절, 17장 11절, 18장 8절, 9장 19절, 27절에서 30절, 22장 1절에서 13절, 30절에서 32절, 마태복음 24장과 25장, 26장 29절, 26장 6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장 20절을 참고해 보세요. 이 구절들은 세상 끝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13장에서 심판에 대한 강조는 이미 주어진 몇 가지 함의를 다시금 강조하며, 이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미래의 심판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비유가 교회 규율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무심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거짓 제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보는 것이 다소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교회라는 관점으로 이 전쟁터를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장 38절에 따르면, 교회는 세상에서 좋은 씨앗, 즉 나쁜 씨앗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24장 14절과 28장 19절에 나오는 교회의 궁극적인 세계 사역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7:21-23과 18:15-17, 그리고 그 비유 다음에 나오는 18:21, 그리고 22:11-14와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성장하며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 하지는 않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 38절의 이 본문을, 실례합니다만, 마치 교회에 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처럼 비유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신 후, 세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13장 44-50절, 숨겨진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숨겨진 보물과 진주라는 두 비유는 숨겨진 보물이든 진주든, 하나의 목표를 향한 희생적인 추구를 묘사합니다. 이 두 비유가 본문 전반부 마지막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와 얼마나 유사한지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비유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예수님을 숨겨진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분과 진주를 사는 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문맥을 무시하고 마태복음에 바울 신학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는 20장 28절 과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언급하지만, 문맥에 더 잘 맞는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에 대한 말씀과 행적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긍정적인 반응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서 나타났습니다(13:8, 23).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13:11).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의로운 자들이 좋은 씨앗을 모아 헛간에 모은 것처럼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13:43). 이는 그물의 비유(13:48)로 더욱 강화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미미한 수준에서 위대한 수준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동일한 패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천국은 숨겨진 보물이자 값진 진주로 묘사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 치우는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 이는 분명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제자도의 모습과 잘 어울립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9장 9절과 비교)에서 가족과 낚시 도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수반하며, 역설적이게도 16장 25절과 26절에서 그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기를 거부합니다 (19:21, 22).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치르는 자는 모두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19:27-29). 따라서 이 비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희생과 제자들이 그분을 따를 때 느끼는 기쁨(13:44, 10절과 28:8 비교)을 제시하며, 13:20에서는 일시적인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 기쁨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 소유와 미래의 보상에 있습니다.

현재 부의 유혹(마 13:22)과 이 세상 삶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세에서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더 큰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제 그물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물 비유의 메시지는 가라지 비유의 메시지 와 분명히 유사 하지만, 두 비유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이 비유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등장하는 반면, 앞선 비유에는 밀과 씨앗, 두 종류의 식물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28장 20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명령된 왕국 선교의 보편성을 미묘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모을 때 차별하지 않으며, 왕국의 제자들도 사람을 낚을 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4:19, 22:9, 10).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 성장 철학을 재고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 철학은 때때로 특정 인구 집단을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선교 목표의 유일한 지표로 삼으려 합니다. 마치 교회를 도심이나 도심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대신 교외로 옮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밀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죄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물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누가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의 마지막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비유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1351절과 1352절에 나오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1352절에 비유적인 도입부 공식이 언급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서기관이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이미 여러 번 보았던 고전적인 비유적 도입부입니다. 따라서 51절과 52절의 집주인 비유도 동일한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짧다는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두 쌍으로 구성된 최소 네 개의 짧은 비유를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와 후반부에 나오는 진주 속의 숨겨진 보물의 비유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을 분석할 때, 8개의 비유가 네 개씩 두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즉 전반부에 군중에게 네 개, 후반부에 제자들에게 네 개씩이라는 점을 간과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 다수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더디게 반응합니다(13:10, 13:36).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엇갈린 반응을 받을 것임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초라한 시작은 결국 실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희생은 엄청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비유적으로, 따라서 신비롭게, 심지어 수수께끼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해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은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비유는 분명히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도록 주어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달 수단이었을 것입니다(13:11).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적 가르침을 이해한다고 확언했기에, 예수님은 세 번째 설교를 또 다른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덧붙여, 그들이 이해했다는 주장을 1515년 조금 후에 일어난 일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이해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에누리로 받아들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설교를 또 다른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이번에는 짧은 비유입니다. 사실 이야기라기보다는 직유 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의 두 쌍의 짧은 비유처럼, 이 비유 역시 해석이 없습니다.

13:31-33과 13:44-46을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율법학자나 교사라고 부르신 것은 다소 놀랍습니다. 새번역(New Living Translation)에서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로 일관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직분에 있어서, 그들은 서기관들이 더 큰 유대인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활동할 것입니다.

23장 34절에서 그리스도인 서기관들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을 살펴보세요. 여기서 제자들의 역할은 새것과 옛것을 모두 활용하여 집안을 관리하는 집주인의 역할에 비유됩니다. 새것과 옛것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가르침에 비추어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기본적인 가르침은 5장 17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기독교 이전 경전은 낡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골동품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 서기관들의 자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주요 자료로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섯 가지 주요 담화, 즉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10장, 선교 설교,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 18장,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 그리고 24장과 25장, 종말론적 담화에 이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즉 천국의 서기관이 자기 보화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어 놓으리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새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맺습니다.

왕국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자원, 곧 하나님 통치의 종말론적 시작에 대한 새롭고 확실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옛 성경을 성취합니다. 해그너는 그의 주석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기독교를 대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매우 잘 표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신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페이지가 닳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하지만 구약 으로 너무 자주 돌아가다 보면 페이지가 빳빳하고 새것처럼 보이며, 아마도 이전에 읽은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옛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성취하는 새 계시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상부 구조가 옛 계시의 기초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